

“전환기”의 독일어

김태성(부산대)

1. 이끄는 말

격변기를 전후로 한 사회적인 변화는 언어상으로도 반영된다. 1989년 가을 이전의 동독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평화혁명’은 언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전환기의 계기를 마련한 그해 여름 동독 주민의 탈출의 물결과 라이프치히에서의 전에 없던 군중시위는 의사소통의 욕구를 일깨운 사건이기 때문이다. 혁명적인 사건들과 함께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하다. 언어가 “혁명 자체의 징후”로, “작용요인”으로 나타났던 것이다(Stötzel 1991: 9).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언어의 문제를 부각시킨 사건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동독 사회에서의 변혁은 언어를 통해서 준비되고, 일어나고,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9년 동독에서의 실로 역사적인 사건¹⁾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전환’ Wende²⁾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은 특정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 대변혁 내지는 대결국면에서의 갑작스러운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환’이라는 말 자체가 동독의 민주화를 시도했던 11월 혁명의 시기로부터 동독이 서독에 통합되기까지의 전환기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혁명적인 사건 자체가 새로운 의미의 낱말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전환기 동안에 또는 전환기 직후에 일련의 새로운 낱말이 생기거나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독일 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경

-
- 1) 이를 두고 “Aufbruch” 또는 “Umbruch”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으며, 작가 슈테판 하임 Stefan Heim은 “friedliche Revolution”, 크리스타볼프 Christa Wolf는 (’89.11.4 시위에서) “revolutionäre Erneuerung”이라고 했다. Kinne 1990: 118 참조.
 - 2) 이 낱말은 최근의 독일의 역사에서 1982년 사회·자유민주당의 연정으로부터 기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어휘사전에서는 ‘Wende’의 의미 가운데 한 가지를 “(hist.) der große politische u. gesellschaftliche Umbruch des Jahres 1989”라고 풀이하고 있다. vgl. Duden.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in zehn Bänden. 3. Aufl. Mannheim·Leipzig·Wien·Zürich. 1999.

제적·사회적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어휘 부문에 일대 변화가 있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인 변화를 집약하는 말은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말은 전횡을 일삼던 사회통일당 SED에 의해 그간 말을 빼앗겼던 데 대한 국민의 풍자적인 항변이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짧은 시기 동안에 일어났던 '89년 가을, 이전의 동독에서의 정치적인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전환기의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 복합적인 현상을 우선 ‘어휘’와 관련지어 기술하려고 한다.

이어서 우리는 어휘상의 변화를 훨씬 뛰어넘는 언어의 다른 차원을 파악한다는 가정에서 전환기와 함께 생겨났고 “전환기의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 '89년 가을 군중시위 ‘구호’ *Losungen*의 새로운 화법의 특징을 언어상의, 또는 텍스트 종류와 의사소통상의 관점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동독에서의 시위의 구호 텍스트를 가지고서 언어공동체 안에서의 텍스트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떻게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화가 변화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전환기의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자면, 먼저 그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이다. 언어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에 선행하는 언어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만 특정한 어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환기 이전의 동독의 독일어

동독의 독일어 연구의 권위자인 헬만 M. W. Hellmann은 1989년 9월초에 라이프치히에 갔을 때, 국가적인 기념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Dynamik Dialog Realismus 40 Jahre*”라고 씌어진 현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서 아연실색했다고 한다(Hellmann 1997: 53 참조). 그것은 구호의 허구성이 보였기 때문이며, 그 세 가지는 바로 동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와 당 지도부는 더 이상 개혁은커녕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으며,

경제의 활성화와 성장을 외쳤지만, 경제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했고, 사회는 정체되어 있었고, 언론은 막혀있었다. 동독의 국민들은 모두 다 헝가리 국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 의사소통의 거부로서의 침묵이었지만, 물론 이것은 말을 잘 할 수 있으면서도 지키는 침묵이었다. 국민은 국내외의 소식을 알기 해서 신문물을 보아도 행간의 의미를 생각해야 했다. 그러하였기에 동독의 주민들은 “생존전략의 일부로서 공식적인 텍스트를 해석하여 읽을 줄 아는, 조심스레 지키고 때때로 가다듬어 온 능력을 개발했다”(Thierse 1993: 122).

정부도 ‘대화’를 말하기는 했지만 민주화를 요구한 재야단체의 등록을 거부하고 이적단체로 규정했었다. ‘전환’ Wende이니 ‘대화’ Dialog와 같은 말이 당 간부의 연설에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자세히 보면 지배자의 전형적인 화법의 소산이었다. 동독의 위정자들은 다른 편의 말을 자기네의 텍스트에 받아들여더라도 자기네의 사고와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믿게끔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텍스트에 나오는 대화에 대한 개념 파악은 그 시기의 시민운동 단체였던 ‘노이에스 포럼’ Neues Forum과는 분명히 대립되어 있었다. 그 단체가 천명한 기본적인 입장은 ‘대화’의 개념이었지만,³⁾ 여기에는 언제나 수식어 *echt*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볼 때,⁴⁾ ‘노이에스 포럼’은 어떠한 의미로 대화를 이해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다.

3) 89년 9월 10일 Neues Forum이 발족과 관련하여 발표한 다음의 텍스트 참조:

„In unserem Lande ist die Kommunikation zwischen Staat und Gesellschaft offensichtlich gestört. Belege dafür sind die weitverbreitete Verdrossenheit bis hin zum Rückzug in die private Nische oder zur massenhaften Auswanderung.[...] Um alle dies Widersprüche zu erkennen, Meinungen und Argumente dazu anzuhören, bedarf es eines demokratischen Dialogs über die Aufgaben des Rechtsstaates, der Wirtschaft und der Kultur. Über diese Aufgaben müssen wir in aller Öffentlichkeit, gemeinsam und im ganzen Land, nachdenken und sprechen.“ Zit. nach Samson 1994: 209.

4) Neues Forum이 89년 10월 12일 ‘대화’의 주제에 대해 밝힌 다음의 입장 참조:

„Wenn das Politbüro der SED jetzt einen echten Dialog mit der Bevölkerung, mit den unterschiedlichsten Kräften und Strömungen innerhalb der Gesellschaft sucht, besteht die Gefahr, daß auch dieser Ansatz wieder durch die vorhandenen Strukturen erstickt wird. Deshalb muß ein echter Dialog institutionalisiert werden! [...]“ Zit. nach Teichmann 1991: 256.

이른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주의”는 언어로 엮어 놓은 가상세계였고, 거기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압력만이 실지로 있었고, 속이는 자들의 자기기만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전환기가 시작되고서도 그들은 동독에서의 사회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상투적으로 말할 따름이었으며, 동독의 정치 역시 “*gut, zuverlässig, verlässlich, berechenbar*”와 같은 수사로 평가되고 있었다(Kinne 1990: 14). 이러한 사회의 일상계에는 심각한 위기와 총체적인 파멸의 징후가 숨겨져 있었다.⁵⁾ “사회는 몰락은 언어의 타락과 함께 시작된다”고 동독의 극작가 하이너 뮐러 Heiner Müller가 말한 바 있거니와(Neues Deutschland 14. 12. 1989, Schröder 1991: 51 재인용). 그러한 타락에는 언어형태의 고착화, 곧 정체가 있게 마련이었다.

1989년 가을 동독에서의 새로운 공식적인 언어가 불러일으킨 엄청난 충격을 폴렌즈 P. von Polenz (1993)는 “언어의 저항”이라고 부르고 있다. 군중시위는 언어의 힘과 언어의 재치를 보여주었으며, “언어의 힘으로 권력의 언어에 맞서기” 시작한 것이었다(Schröder 1991: 53). 동독에서의 언어 저항은 일상어와는 극도로 동떨어지고 완전히 자기기만의 수단으로 전략해 버린 독재정당의 언어가 참을 수 없을 지경의 막다른 국면에 이른 데 대한 국민의 반격이었다. 동독의 학자 호퍼 R. Hopfer의 말을 빌리자면, “동독에서의 혁명은 사회의 의사소통의 면에서 오웰이 그린 상황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항거한 데에 나타났다. (...) 동독에서는 언어도 반항을 했던 것이다”(Hopfer 1992: 111).

언어에 대한 공식적인 성찰의 정점을 이룬 것은 작가 크리스타 볼프 Christa Wolf의 인상적인 연설(1989년 11월 4일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의 시위에서 행한)이었다:

Jede revolutionäre Bewegung befreit auch die Sprache. Was bisher so schwer auszusprechen war, geht uns auf einmal frei über die Lippen. Wir

5) 시민단체 Demokratischer Aufbruch의 임시 발족선언문(89. 10.30) 참조:

„Die Gesellschaft der DDR befindet sich in einer moralischen, sozialen, ökonomischen, ökologischen und politischen Krise. Der Bürger wird immer noch entmündigt. Da zum Dialog gleichberechtigte Partner gehören, kann unsere Gesellschaft erst demokratisch werden, wenn sich neben der Einheitspartei andere politische Größen konstituieren.“ Zit. nach Samson 1994: 210.

staunen, was wir offenbar schon lange gedacht haben, und was wir uns jetzt laut zurufen: Demokratie - jetzt oder nie! [...] soviel wie in diesen Wochen ist in unserem Land noch nie geredet worden, noch nie mit dieser Leidenschaft, mit soviel Zorn und Trauer, und mit soviel Hoffnung. [...] Ja: Die Sprache springt aus dem Ämter- und Zeitungsdeutsch heraus, in das sie eingewickelt war, und erinnert sich ihrer Gefühlswörter. (Volmert 1992: 108f.)

수사학의 기준으로는 다듬은 흔적이 없는 듯한 이 연설문에는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전환기의 핵심적인 낱말들이 시류에 편승하는 구정치인들에게서 잘못 사용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작가의 언어에 대한 민감성과 동시에 이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전의 동독의 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이었으며 당의 이데올로기였다. 당의 기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 언론과 예술, 교육 부문도 당의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했었다. 권위주의 국가였던 동독에서는 기관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의 행위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Fix 1994: 131 참조). 동독의 주민들은 서독의 주민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지만, 언어생활에 처한 형편이 달랐다. 당과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감시된 언어규정은 “신문의 편집인들만이 아니라 본래 누구나 언제나 경례를 해야 했던, 모든 것을 덮는 게슬러의 모자였다”(Thierse 1993: 122). 당의 가치관이 제시되어 있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당이 언어의 사용을 규정했다는 의미에서 언어도 정치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⁶⁾ 경직된 당의 언어는 “공고문의 언어” Verlautbarungssprache라고 불렸으며, 동독에서도 오래 전부터 비판을 받았고 조롱거리가 되었었다.⁷⁾ 흔히 속격과 전치사구로

6) 일례로 어휘사전에서의 낱말에 대한 개념정의도 정치적 이념의 영향 아래에 있다. 예: „Arbeitslosigkeit: typische Erscheinung im Kap(italismus) [...]“. Hand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von Günter Kempcke. Berlin 1984, S. 74.. Vgl. auch „Wie die Sprache des Dritten Reiches, so sind auch die sprachlichen Veränderungen im Osten Deutschland von der Ideologie her bestimmt.“ Moser 1964: 12.

7) 그 언어는 “Kaderwelsch, Funktionärsjargon, Parteichinesisch, SEDistanisch, Sekretärsdeutsch, Hoch-DDRsch, Ritual der Selbstgenügsamkeit, Selbstgespräch der Herrschenden,

길게 이어지는 복잡한 구문의 “당의 독일어”⁸⁾에는 *weiter erhöhen, festigen, ausbauen, noch besser gestalten, noch mehr stärken*과 같은 표현(Teichmann 1991: 257 참조)과 *noch, zunehmend*와 같은 낱말을 넣어⁹⁾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투쟁’)할 것을 독려하고 호소하는 글귀를 볼 수 있다.¹⁰⁾ 그리고 당 간부의 화법에는 언제나 특정한 어구 *immer, zu allen Zeiten* 등을 넣어 진술의 내용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려 했으며, 변화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¹¹⁾

위정자의 화법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정치적인 전환의 결과로 다른 화법이, 다른 언어가 나오게 되었지만, 그러한 과정은 이미 전환기라는 정치적인 사건 이전에 시작되었다. 동독의 언론매체에 ‘*langue de bois*’¹²⁾라고 불리는 언어가 거의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던 독재 정당의 시기에도 다른 언어가 있었다. 당의 언어 문체에 대한 언어비판은 동독에서 이미 50년대에도 있었으

Sprach der Stagnation” 등으로 풍자되었다. vgl. Polenz 1993: 130.

8) 동독의 사회통일당 SED 시대 독일어의 예:

„In Verwirklichung der beschlossenen Maßnahmen zur weiteren Vervollkommnung des Systems der sozialistischen Planwirtschaft bei der Gestaltung der entwickelten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in den Farben der DDR richten wir unsere Anstrengungen darauf, die Maßnahmen zur umfassenden Eigenerwirtschaftung der Mittel so anzuwenden, daß ein hoher Gewinn als Quelle für wachsendes Nationaleinkommen zum Wohle des Volkes realisiert wird.“ Der Sprachdienst 34(1990) S. 14.

9) Vgl. „Wir müssen noch wirksamer dazu übergehen, zunehmend von den Fakten auszugehen, um die Bevölkerung noch realistischer in die Richtigkeit unseres Weges einzuweißen, der einerseits sieghaft ist, andererseits natürlich noch Mängel und Schwächen aufweist, die zunehmend beseitigt werden, daß die Gesetzmäßigkeit unserer Entwicklung sich noch spürbar auswirkt, um zunehmend Niederlagen [...] zu vermeiden.“ Zit. nach: J. Schröder 1991:53

10) '89년 5월 1일의 당의 구호의 예: „Mein Arbeitsplatz - ein Kampfplatz für den Frieden.“

11) „Sie[die Partei] hat immer an der Spitze der sozialistischen Partei in unserem Lande gestanden und alle gesellschaftlichen Umwälzungen geführt. So wird es auch diesmal sein.“ Teichmann 1991: 260.

12) *langue de bois*라는 개념은 7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나온 것으로 특히 정치 영역에서 상투적인 어구를 중첩해서 표현하는 경직된 어법을 말한다. 딱딱하다는 것은 언어 자체가 아니라, 언어 사용을 두고 하는 말이다.

며, 70년대, 80년대부터는 더욱 강하게 당의 화법에 대한 패러디를 카바레의 공연이나 풍자적인 잡지와 문학 작품에서, 그리고 방송에서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Polenz 1993: 131).¹³⁾ 그것은 ‘langue de bois’라고 비유되는 언어에 대한 거부 표현이었으며, 언어로 자기방어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 (Teichmann 1991: 256). 전환기 전후의 시기에 공중公衆의 언어가 된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환기”의 저항적인 언어의 새로운 특징은 어휘 선택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어휘 사용에도 있었으며, 딱딱하게 제도화되고 의식화儀式化된 틀로부터 공식적인, 정치적인 언어를 해방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이 동독에서의 언어 저항은 오래된 “통치의 화법”에 항거하여 새로운 화법¹⁴⁾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된다(Hopfer 1992: 111-134).

그러나 “동독의 독일어”¹⁵⁾를 단순히 당이 사용하는 언어와 동일시한다면, 동독의 언어의 일면만을 보는 것이 될 것이다. 동독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른바 공식적인 “공고문의 언어”와 주민의 “일상어” Alltagsprache라는 두 가지 언어 모델이 제시되었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독에서의 두 가지 언어에 있어서의 부호전환 Codeswitching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근래에는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언어모델 대신에 “세 가지 언어모델”이 나왔다. 동독에서도 언어상으로, 의사소통상의 면에서 중간 내지는 혼합 영역이 있었던 것이다. 전환기 이전에 동독에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다른 의

13) 풍자적인 어법이 다반사였다. 예컨대, 국가안전부 Staatssicherheitsdienst를 “Firma Horch, Guck & Greif”라고 불렀다. Polenz 1993: 131, Schlosser 1999: 162.

14) 호퍼 Hopfer는 화법 Diskurs이라는 개념을 “넓은 의미의 사회의 차원에서의 언어상의 의사소통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Hopfer 1992: 113). 그에 따르면 사회라는 큰 구조 속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화법은 언어적인 현상과 언어외적인 현상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15) „Unter Berücksichtigung des Gesagten wird - wie mir scheint - dem gegenwärtigen Zustand der Verwendung der deutschen Sprache in der DDR die terminologische Fixierung >die deutsche Sprache in der DDR< am ehesten gerecht. Weitergehende Spezifizierungen erscheinen mir heute nicht gerechtfertigt. Die in der DDR erarbeiteten Kodifikationen sprachlicher Normen auf den verschiedenen Ebenen [...] lassen keine weitgehenden Normdifferenzierungen erkennen.“ Fleischer 1983: 259.

사소통의 영역이 있었다(Fraas/Steyer 1992: 175 참조).

- ㄱ) “공식적인” öffentlich 화법
- ㄴ) “공식적인 언어에 준하는” halböffentlich 화법
- ㄷ) “사적인, 사람들간의” privat-zwischenmenschlich 화법

“동독의 언어생활의 본질적인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언어와 비 공식적인 언어 사이의 명확한 분리였다”(Schlosser 1999: 158).¹⁶⁾ 공식적인 언어는 전환기 이전에 대체로 정부나 당의 공식적인 화법이었으며, 공적인 집회에서나 기관(예: 학교, 관청, 군대)과 대중매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ㄴ)의 공식적인 언어에 준하는 화법은 교회와 재야단체, 이익집단에서만뿐만 아니라, 극장, 음악회, 작가 낭독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지식인들 사이의 문화적인 모임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화법에는 비판적이거나 반어법적인(냉소적인) 언어와 “오랜 기간에 걸쳐 체계를 갖춰 온 언어 저항의 선구자”격인(Polenz 1993: 131) 정치적인 재담도 들어간다. ㄷ)의 “사적인, 사람들 사이의” 화법과 다른 점은 어떠한 기관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집단의 의사소통의 규범에 따라 각기 특색을 보였다는 점이다(Fraas/Steyer 1992: 175). 바로 이 영역이 동독의 특징적인 언어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언어가 있다” innere Mehrsprachigkeit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Fraas/Steyer 1992: 175). 여기에서는 분명히 일상어의 요소가 지배적인 역할을 했지만 어떤 문제를 토의할 때에는 공식적인 연설의 요소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의 사적인 영역은 언어 현실에 있어서는 권위적인 국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정치화된 언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예컨대 *Kollektiv*, *Plan*, *Friedenswacht*, *Friedensgrenze* 와 같은 동독 특유의 어휘는 일상생활에도 파고 들어왔다(Fix 1994: 131,

16) 위에서의 ㄴ)과 ㄷ)의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의사소통에 관련된 언어 현상에 대해 평가를 하더라도 이러한 상위언어 *Metasprache* 차원의 의사소통이 ㄱ)의 영역에 아무런 반작용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의사소통의 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Schlosser 1999: 163 참조).

한편, 동독 주민들의 언어생활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용어를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그것을 냉소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으며¹⁷⁾, 동독에서는 실로 그러한 많은 가능성이 있었다. 이처럼 규정된 명칭을 사용하기를 꺼렸던 동독 주민들의 언어에 대한 태도를 볼 때, 동독의 독일어는 독자적인 의사소통공동체라는 조건 아래 있었음이 확인된다(Schlosser 1999: 163 참조).

3. 전환기의 언어

전환기 사회에서의 잇따른 정치적인 사건 가운데서 언어와 공공의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두드러진 사건으로는 당시 동독의 지도부가 국민의 압력에 굴복하여 독일 내부의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한(1989년 11월 9일) 일과 독일의 통일 문제를 의제에 올렸던 1990년 3월 동독에서의 최초의 자유로운 의회선거의 결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89년 가을부터 '90년도에 걸쳐 동·서독에서의 정치적인 변화는 어휘의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언어에서의 어휘란 사람의 생활 양상의 변화에 가장 빨리 전반적으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전환기의 어휘로 불리는 낱말들은 거의 새로운 어휘가 아니다. 특히 이미 존재하는 어휘나 어구, 어법을 가지고 만든 조어이며 그 의미가 바뀐 것이다. 흔히 이미 있는 어휘가 그때까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의사소통상의 중요성이 증가함으로써 갑자기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17) *Arbeiterschließfach/Proletarierintensivhaltung*(신축한 간이 주택), *deutscher Blick*(엿듣는 사람이 없나 살펴 봄), *falten gehen*(선거 때의 투표), *reisefähiges Alter*(연금 수령 연령), *Rotlichtbestrahlung*(정치교육), *Bückware*(특별한 고객에게 판매되었던, 흔하지 않았던 물품. 이 낱말의 경우, 점원이 상품을 꺼내기 위해서는 몸을 ‘굽혀야’(*bücken*) 한다는 데서 그러한 조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등. Schlosser 1999: 163 참조.

3.1. 어휘

전환기의 시기 동안에 ‘Wende’¹⁸⁾와 ‘Dialog’ 이 두 낱말의 동의어는 동독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시민운동 단체였던 ‘노이에스 포름’의 발족 선언문의 제목 자체가 “Aufbruch 89”였고, 그 본문에는 *Erneuerung*(“Wir wollen das Bewährte erhalten und doch Platz für Erneuerung schaffen”), *Umgestaltung*(“Wir rufen alle Bürger und Bürgerinnen der DDR, die an der Umgestaltung unserer Gesellschaft teilnehmen wollen, auf, Mitglieder des NEUES FORUM zu werden”), *Dialog*(“Um all diese Widersprüche zu erkennen, Meinungen und Argumente dazu anzuhören [...] bedarf es eines demokratischen Dialogs”)와 같은 낱말이 나온다(Kauffmann 1994: 178 재인용).

전환기와 통일의 과정에서 동·서독인들에게 잘 알려진 낱말로는 동독 주민의 “탈출의 물결”로부터 시작하여 “여행의 자유”를 쟁취하기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 과정을 나타내는 낱말이다. 예: *Reisefreiheit*, *Flüchtlingsstrom*, *(Massen-)Exodus*, *Ausreisewelle*, *Menschenflut*, *Begrüßungsgeld*, *Hierbleiber*, *Friedensgebeten*, *Montagsdemo(nstration)*, *Heldenstadt (Leipzig)*, *chinesische Lösung*¹⁹⁾ (vgl. Samel, Ingrid/Walther, Helmut(1990: 2f.). 그리고 “기회주의자”를 뜻하는 *Wendehals*²⁰⁾와 조어 “*Mauerspecht*”²¹⁾를 비롯하여 시민운동과

18) “Umsturz”, “Umbruch” 등은 ’89년 가을의 동독에서의 사건을 가리키는 데 많이 쓰이지 않았다. “Revolution”이라는 표현은 ’90년 5월 18일의 화폐단위,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의 전문前文에는 나오지만, 8월 31일 통일조약의 전문에는 빠져 있다.

19) ’89년 6월 4일 중국의 “천안문 사태” 당시 시위군중들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여 시위를 진압했던 을 말함.

20) „wie andere vogelnamen früh auf menschliche träger ähnlicher eigenschaften bezogen [...]: ein jeder ketzer ist ein vnbestendig quiksilber, wetterhan vnd wendehalsz“ Aus: Deutsches Wörterbuch von J. Grimm und W. Grimm. 14. Bd. Leipzig 1955, S. 1751.

21) „Als Mauerspecht sind jedoch nicht nur West-Berliner, sondern auch Ost-Berliner tätig und bekannt geworden, als sie mit ‘spechtartigem’ Hämmern aus der überflüssig gewordenen Betonwand ‘Mauerreliquien’ lösten und zum Verkauf anboten!“ Schlosser 1999: 165.

기초민주주의와 관련된 표현과 한정어가 *Bürger-* (*-forum, -komitee, -initiativ*) 인 합성어와 *Runder Tisch, Sonntagsgespräch, Stasi-Auflösung, Stasi-Akte, Blockflöte*,²²⁾ *Wessi, Ossi*와 같은 낱말들이 나타난다. 동독의 계획경제는 서서히 시장경제 *Marktwirtschaft*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Entflechtung der Kombinate, Kapitalbeteiligung, Joint Ventures, Leistungsprinzip, freie Preisbildung, Gewinnerwirtschaftung*과 같은 개념이 동독의 국내 경제 용어로 사용된다. 행정 부문에서는 직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명칭이 눈에 띄게 된다: *Vorsitzende des Ministerrats, Premier, Premierminister, Ministerpräsident*.

1990년 3월의 선거가 끝난 이튿날 신문에 두 독일 국가의 통일에 대한 결정이 보도되면서 새 조어가 쏟아져 나온다. 1990년 7월 1일의 화폐단위의 통합과 관련하여 수많은 어휘가 양산된다. 다시금 일상생활과 정치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가 어휘에 반영된다. 예: *Noch-DDR, Umstellungsantrag, Kontoumstellung, DM-Einführung, Handelstourismus, Herstellermark, Westbrot, D-Mark-Beschränktheit, gesamtdeutscher Wahltermin, DM-Zeitalter*.

통일의 과정에서 *Zwei-plus-Vier-Verhandlung, D-Mark-Umstellung, Wirtschafts-, Währungs-, Sozialunion, Wirtschafts- und Währungsgemeinschaft, Treuhandanstalt*,²³⁾ *Kosten der Einheit*와 같은 낱말들이 빈번히 사용된다. 1990년 8월에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이 결정됨으로써 동독의 종말이 가시화되고 이 시기에 새로운 어휘가 전성기를 이룬다. 예: *Ost-Länder, West-Länder, Noch-DDR-Bürger, Noch-DDR-Regierung, Nicht-mehr-DDR, End-DDR-Stimmung, Noch-DDRler*.

전환기의 과정에서 어떠한 명칭이, 지시하는 바는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데도 다른 명칭으로 교체된 예들을 볼 수 있다. 서독에서는 대사관을 통해 탈주한 동독 주민들을 “대사관 피란민” *Botschaftsflüchtlinge*이라고 부른 데 반하여, 동독에서는 “반역자” 등으로 *Verräter/Verführte/Grenzverletzer* 불렀다.²⁴⁾

22) SED 당에 소속된 정당의 핵심 당원을 비꼬아 나타낸 표현.

23) 법에 의거하여 이전의 동독 국민의 재산이나 기업을 처분하거나 구조조정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던(1990부터 1994까지) 기관.

24) 동베를린에서는 주민의 탈출을 “*illegales Verlassen der DDR, staatsfeindlicher/imperialistischer Menschenhandel*”라고 표현했다(Stötzel 1991: 10; Hellmann 1997: 62).

“피란민/탈주민” *Flüchtlinge*이라는 표현은 얼마 안 있어 “이주민” *Übersiedler*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²⁵⁾

'89년 10월 9일에 SED 당은 신문 ‘베를리너 짜이퉁’ *Berliner Zeitung*에 성명²⁶⁾을 발표하면서, 베를린 장벽에 대해 그때까지 통용되던 “*Antifaschistischer Schutzwall*”²⁷⁾이라는 공식적인 용어 대신에 국민들이 쓰는 ‘*Mauer*’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치 이데올로기에 예속되어 있던 동독의 대중매체는 정치적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전환기의 직전까지 동독의 언론사에서는 서독의 언론사에 대해서도 욕설을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에 있었던 라이프치히에서의 시위²⁸⁾ 군중들을 “난동자 등 *Rowdys, ferngesteuerte Randalierer, antisozialistische Elemente, Krawallmacher, Konterrevolutionäre*”으로 불렀으며, 10월의 사건 보도에서도 (건국기념일 행사와 관련하여) “난동자, 폭도 등 *Randalierer, Rädelsführer, Krawalleure, Mob, Keine-Gewalt-Schreihälse, Anführer dieser Randle*” (*Berliner Zeitung* 10.10.1989, S. 3)으로 지칭하고서는 1년 후에 그 사건을 회고할 즈음에는 같은 사람들을 “박해받은 자, 고난당한 자 *Verfolgte, Bedrängte*”(Neues Deutschland, 19.11.1990, S. 2)라고 바꾸어 불렀다(Kinne 1990: 16).

명칭변화의 예를 더 들자면, 동독 사회에서의 *Werkstätige(r)*(근로자, 자영업자도 포함됨)라는 낱말은 *Arbeitnehmer*라는 낱말로 대체되었으며, 직장 동료

25) “*Flüchtlinge* aus der DDR würden auch weiterhin als Deutsche unter Deutschen aufgenommen.” *Rheinische Post* 13.11.89.

“An die Bevölkerung der Bundesrepublik appellierte er, die *Übersiedler* mit allen Kräften zu unterstützen.” zit. nach Stötzel 1991: 12.

26) „denkbar, daß schon in absehbarer Zeit die ‘*Mauer*’ ein Relikt aus der Vergangenheit ist“ zit. nach Stickel 1991: 10.

27) 동독에서는 그밖에도 ‘장벽’을 “Sicherungsanlagen an der Grenze der DDR zu Berlin (West) und zur BRD” 또는 “Staatsgrenze”라고 불렀다.

28) 당 SED의 기관지 *Leipziger Volkszeitung*은 '89년 9월의 "월요일 시위"(9월 19일)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In den gestrigen Abendstunden versammelten sich in der Leipziger Innenstadt mehrere Personengruppen, um die öffentliche Ordnung und Sicherheit zu stören. Es waren Zuführungen erforderlich.“ Kinne 1990: 16. “Zuführung”이라는 말은 경찰이 강제로 사람을 체포하여 수사 기관에 압송한다는 의미의 완곡한 표현이다(Wolf 2000).

를 부를 때의 호칭 *Kollege, Kollegin*은 *Herr, Frau*로 대체되었다. 그밖의 예²⁹⁾: *Kaderakte* → *Personalakte, Ingenieurökonom* → *Wirtschaftsingenieur, Popymnastik* → *Aerobic, Schallplattenunterhalter* → *Diskjockey, Feierabendheim* → *Altenheim/Seniorenheim*.

동·서독 간에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낱말로써 옛날에 동독에서 쓰이던 *Kaufhalle*라는 낱말은 *Supermarkt*로 대체되었다. *Kaufhalle*라고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연쇄점이라는 사회적인 통념 때문이었다.

전환기 이후의 낱말의 의미변화의 예를 들자면, 오래 전부터 사용되던 어휘 *Abwicklung, abwickeln*은 소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사람의 삶의 기반을 파괴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다. 이전의 동독 사회에서 *Antragsteller*라는 낱말은 외국(서방)으로 향시 여행할 수 있는 신청을 낸 사람을 뜻하였으므로 이 낱말도 다시 의미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독 특유의 낱말과 어법 일부의 경우에는 여전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의 동독의 변혁과정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신조어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의사소통상으로는 중요하였지만, 다시금 소멸되거나 옛말로 남게 되었다.³⁰⁾ 예: *Ausreisedruck, Rückkehrwillige, chinesische Lösung, Runder Tisch, Trabikarawane*. 특히 동독의 법률 용어라든지 해체된 기관에 관련된 수많은 명칭이 역사 속에 묻히게 된다. 예: *Staatsrat,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MfS)*. 기본어가 *Plan*-인 합성어들, *Grenztruppen, Bausoldat, Reisekader*³¹⁾, *Ausreisevisum, Gestattungsproduktion*,³²⁾ *Hausbuch*.³³⁾ 등. 이 밖에 분단의 상

29) 지명과 거리 이름도 전환기 동안에 바뀌었다. *Karl-Marx-Stadt* → *Chemnitz, Karl-Marx-Allee*(베를린) → *Frankfurter Allee, Karl-Marx-Platz*(라이프치히) → *Augustinusplatz* vgl. Clyne 1995: 77.

30) „Die kurze Phase basisdemokratischer Bewegungen 1989/1990 ist nicht sehr nachhaltig gewesen (...) und wird im Wortschatz vermutlich keine bedeutende Spuren hinterlassen. Bildungen wie *Ausreiser-* und *Hierbleiber* etwa sind heute schon historisch.“ Fleischer 1992: 24.

31) 외국(서방)으로 공무여행을 할 수 있는 자로 선발된 자.

32) 서독 회사의 위탁으로 동독에서 서독의 기술로, 흔히 서독의 기계와 물자로 생산하는 방식이나 그 상품. 상품의 일부는 동독에서 판매되었음.

황에서 사용되었던 낱말들(예: *Mindest-/Pflicht-/Zwangs austausch, Tagespassierschein, Fluchthelfer, Intershop, Intertank, Interhotel*)과 어떤 직능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명칭(예: *Elternaktiv*)과 호칭(예: *Genosse, Verdienter Aktivist, Held der Arbeit*), 훈장의 명칭(예: *Banner der Arbeit*)이라든가 편지에서의 *Mit sozialistischem Gruß* 라는 마지막의 문구는 오늘날 사라졌다(Fleischer 1992: 27).

전환기 이후에 동독의 생산품의 명칭들(예: *Trabant: Trabi, Rennpappe*라고도 불림)도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다. *SERO(Sekundärrohstoff(재활용품을 원료로 가공(하는 기관))*라는 낱말도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역사적인 어휘가 되었다.

그밖에 *Jahresendflügelfigur / geflügelte Jahresendfigur*(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조형물), *Frühjahrs-Schokoladenhohlkörper*(부활절의 초콜릿 토끼)라는 어휘도 이제는 더 쓰이지 않게 되었다.

동독 특유의 낱말들은 대부분 점차로 사라지게 되고 다만 역사적인 의미에서 관심을 끌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독의 정치와 경제제도에 관한 모든 어휘에 해당된다. 동독이라는 국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어휘들은 좀더 오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수명은 그 낱말이 가리키는 사물(사항)이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예: *Rahmbutter, Jugendradio, Jugendfernsehen, Babyjahr*(Fraas 1990: 596).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 많은 어휘가 해체의 과정에 있거나 이미 사라졌다. 예: *Jugendmode, Ingenieurhochschule, Exquisitladen, Delikatladen*(Fraas 1990: 596).

전환기의 어휘의 단면을 고찰할 때, 눈에 띄는 것은 많은 새로운 명명에 국민들의 언어유희적인 정서가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인 조어가 더러 많다. 예: *BRDigung der DDR, Billig-Ossi-Land, Alu-Chip*(동독의 동전), *nationale Besoffenheit, Beitritts-Hickhack, Betonkopf, KRENZlos, SCHLACKhaft, D-Mark-Beschränktheit, DM-Wunderland* 등.

이처럼 전환기의 많은 조어와 어법에는 재치와 기지가 번득이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사용되어 온 동독의 전형적인 공적인 언어의 딱딱한 각질을 벗겨

33) 모든 가정에 비치되어 있던 장부로서 외국인 방문객으로 유숙하거나 동독의 주민 이더라도 사흘 이상 머무를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했음.

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휘의 영역에서 어휘변화의 과정을 좀더 정확히 고찰하면, 두 가지의 본질적인 경향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서독과 동독의 국경이 점차로 사라지면서 서독 특유의 어휘와 동독 특유의 어휘 사이에 경계가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어휘와 어법의 등장과 기존 어휘의 의미 변화는 독일 동부의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Fraas 1990: 594). 몇몇 전형적인 동·서부의 낱말들을 제외하고 보면, '89년도 연말의 시점에서 동·서독의 공적인 언어 사용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를 보이는 낱말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³⁴⁾

서독 특유의 신조어나 외래어(예: *Info-laden*, *-cafe*, *Instandbesetzung*, *Intercity*, *relaxen*, *Rushhour*)는 1990년 일 년 사이에 이미 동독의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다. 이리하여 동독에서의 “전환기”와 독일 통일의 과정과 함께 서독에서만 쓰이던 특정한 낱말들이 독일 전체에 통용되기에 이른다.

3.2. 구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치적인 변혁의 상황에서는 제도권의 정치가가 아니라, 시민들 자신이 정치적인 의사소통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 '89년 10월 이후 공식적인 언어 사용은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때까지 공식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되지 않던 개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처음으로 예컨대 환경문제와 같은 금기시되던 주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었으며, 핵심적인 낱말들이 바뀔수록 말미암아 사회적인 사태의 진행과정에 대한 가치평가가 바뀌었다.

구호 *Losungen*는 호소(요구, 요청하는 성격의)하는, 또는 행동의 지침을 주는 기능을 하는 간결하게 표현된 하나의 ‘텍스트 종류’로서 정치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성격을 갖는다. 전환기 이전의 동독의 의사소통 문화에서 볼 때, 매년 5월 1일을 맞아 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하던 50여 가지의

34) 학회(Gesellschaft für die deutsche Sprache)에서 그해의 낱말을 선정할 때, *Begrüßungsgeld*, *Reisefreiheit* *Mauerspecht*와 같은 낱말을 동·서부의 어느 쪽에다 넣어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Kinne 1990: 18 참조.

구호는 일반적으로 선언된 당의 강령과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의례적인 텍스트였다. 어휘나 구문상으로 보아 현실과 거리가 먼, 판에 박힌 표현들이며, 명사 문체로 된 길고 복잡한 문장은 이해를 어렵게 한다. 예:

Unsere antiimperialistische Solidarität den Völkern Afrikas, Asiens und Lateinamerikas in ihrem Kampf für Frieden, nationale Unabhängigkeit und sozialen Fortschritt! (Fraas/Steyer 1992: 180).

구호는 전환기 이전의 동독 정치인들의 연설문의 전형적인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Fraas/Steyer 1992: 180). 옛날의 구호는 당이나 국가 기관에서 미리 작성하여 제시되었다. 수신인 Adressat으로서의 대상자는 국민이었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공적인(정치적인)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 대상자와의 관계는 불균형을 이룬 하향식이었다. 구호의 주제나 어휘를 보면, 읽어 보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당, 평화, 사회주의, 동독의 경제 발전, 우방국과의 유대” 등이다(Fix 1990: 346ff. 참조).³⁵⁾ 그것은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구호를 사용하여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고 호소하여 국가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꾀하려 했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은 공허하여 전혀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옛날의 정치적인 구호에는 문학적이거나 언어유희적인 요소도 없다.³⁶⁾

이와는 달리 새로운 화법으로의 의사소통의 상황이 마련되었던 '89년 가을의 '시위 구호' Demo-Sprüche는 의사소통 행위의 자유를 누리면서 집단의, 또는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개별적인 발화이며, 발화 주체로서의 구호의 작성자는 개인 또는 자유의사로 결성된 집단으로서의 국민이다. 그러한 정치적인 변혁의 상황에서는 제도권의 정치가가 아니라, 사회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시민집단 자체가 정치적인 의사소통의 주역이었던 것이다. 이 군중시위가 겨냥하는 대상자는 우선, 새로운 의사소통공동체로서의 시위

35) 예: *Es lebe der 1. Mai, der Kampftag der internationalen Arbeiterklasse!*

36) '89년 5월의 많은 구호 가운데 “*Vierzig Jahre DDR - Alles mit dem Volk, alles durch das Volk, alles für das Volk!*”와 같이 리듬이 있는 구호는 겨우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Fix 1994: 142ff. 참조..

행렬에 가담하여 시위를 하는 집단적인 발화자 자체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사회의 참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일반대중으로서의 개인과 집단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균형을 이룬 대상자의 관계에 있다. 한편, 대상자는 언어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당과 정부기관과 거기에 속해 있던 기회주의자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대상자와의 관계는 아래에서 위로 향한 불균형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하겠지만, 이제 유보된 권리에 대해 항변하는 국민은 그들을 “너희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등한 관계에서 말하고 있다. 간접적인 대상자는 혁명적인 움직임을 국내외로 널리 보도했던 독일의 대중매체의 기자들이었다.

전환기의 시위 구호의 주제는 시민들의 모든 정치적인 경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주권과 자유³⁷⁾를 부르짖더라도 아주 구체적이며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며, 국민은 국가에 대해 민주화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시위 구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동독에 특수했던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텍스트를 다루기 전에 공적인 언어사용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환기 이전의 구호는 불균형적인, 권위적인 상황에서 나왔고, 전환기의 시기와 그 이후의 구호는 반대의사를 표명해도 좋은 상황에서 나왔다. 말하자면, 의사소통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은 주제와 언어수단을 선택하는 데에 어느 정도로 자유로웠으며, 텍스트의 유형(모본)은 어떠한 의사소통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전환기 이전의 구호에는 위선적인 면이 있다면, 전환기 동안과 그 이후의 구호는 참인 것을 말하라는 질의 격률을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군중시위의 상황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는 교회에서의 토론, 거리에서의 대화, 짧은 즉석연설, 방송 인터뷰와 비언어적인 수단으로도 침묵시위, 촛불시위 등을 들 수 있지만, 시위 구호는 수천 명이 참가한 시민운동의 표현 수단이자 “전환기”의 초기에 공공의 의사소통 수단의 한 통로였다. 따라

37) 예: *Neue Parteien - freie Wahlen; Reisefreiheit für die ganze Familie; Weg mit Militärparaden und Betonköpfen*. vgl. Reiher 1992: 52.

서 구호 텍스트는 정확히 보자면 답을 요구하는 대화의 한 쪽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⁸⁾ 구호는 주로 ‘요구’의 화행 *Sprechhandlung*을 담은 공식적인 외침이지만, 구호의 텍스트가 갖는 그러한 대화의 성격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화행이 설명된다. 예를 들어 열거해보자면(Fix 1990: 340ff.; Fix 1994: 144 참조):

요구: *Stasi in die Volkswirtschaft!*

Jetzt geht es nicht mehr um Bananen, sondern um die Wurst.

요청: *Lasst uns selbst entscheiden, wer uns soll leiten.*

호소: *Honi, reih dich ein, du kannst so schlecht nicht gewesen sein!*

소원: *Ich möchte in der Schule alles sagen können.*

위협: *Wenn die SED nicht geht, gehen wir.*

주장: *Wir sind das Volk.*

질문: *SED, was war das?*

인사: *Auf Wiedersehen, ihr roten Brüder*

감사: *Kirche, wir danken dir.*

감정 표현: *SED, das tut weh!*

욕설: *Scheiß SED! / Ihr seid das LETZTE!*

인용: *Vorwärts immer, rückwärts nimmer.* (호네커 E. Honecker)

Denk ich an die SED in der Nacht,

so bin ich um den Schlaf gebracht. (하이네 H. Heine)

Der Kaiser geht, die Generale bleiben. (플리비어 Th. Plivier)

이어서 구호의 텍스트에는 어떠한 언어 문체의 수단이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전환기의 시위 구호는 제도화된, 관습적인 언어의 탈을 벗고 “텍스트의 개인화”(Fix 1994: 132)라는 특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아래의 예는 Fix 1990: 337; Fix 1994: 137ff.

38) 구호를 답변을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vgl. Reiher 1992: 44.

참조)

- 언어유희:
Soll Konsummarsch uns BRDigen? / Wider Vereinigung!
- 인명을 넣은 언어유희:
Ein Krenz macht noch keinen Lenz.
Egon Krenz - wir sind die Konkurrenz. / eGOn.
BeKRENZt - wie lange! / Demokratie - unbeKRENZt.
Demokratie krenzenlos. / Mehr Ökologie statt EGONomie!
- 패러디:
Vorschlag für den Ersten Mai: Die Führung zieht am Volk vorbei!³⁹⁾
Mißtrauen ist die erste Bürgerpflicht.
- 옛 구호의 패러디:
So, wie wir heute demonstrieren, werden wir morgen leben.
(5월의 구호: *So wie wir heute arbeiten, werden wir morgen leben!*)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zeiht mir!
(카를 맑스 K. Marx: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Zusammenwachsen, nicht zusammennieten!
(빌리 브란트 W. Brandt: *Jetzt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gehört.*)
- 속담을 바꾸어:
Lügen haben kurze Beine - Egon, zeig uns deine!
- 비유:
Die Straße ist die Tribüne des Volkes.
Zu alten Köpfen passen keine neuen Perücken.
- 반어:
Deutschland in den Grenzen von 1254 - Neapel bleibt unser!
Leipzig zum Luftkurort - Gasmasken für alle!
- 경구:
Es ist schwierig, Menschen hinters Licht zu führen, wenn es ihnen

39) 이 구호는 정부가 국민을 몰아내고, 새 국민을 선출하라고 한 브레히트 B. Brecht의 시를 연상시킨다.

aufgegangen ist.

- 운韻:

Rücktritt ist Fortschritt. / Rechtssicherheit ist die beste Staatssicherheit.

Stasi, Nasi, Gysi, nein danke!

Logen sie gestern, lügen sie heute,

es sind immer die gleichen Leute.

Mit dem Fahrrad durch Europa, aber nicht als alter Opa!

Bundesland Sachsen wird wieder erwachsen.

- 좌익단체 구호:

Lieber viele saubere Flüsse als einen schwarzen Kanal.⁴⁰⁾

- 관용적인 어법:

Die Karre steckt zu tief im Dreck,

die alten Kutscher müssen weg.

Pässe für alle - Laufpass für die SED!

- 짧고 단순한 문장:

SED - nein danke!

- 일상어/속어:

Macht da oben keine Faxen, was wir wollen, den Freistaat Sachsen!

Geduld hat ihre Grenze - Wir lassen uns nicht länger verarschen!

- 두문자의 이합체離合體:

Stalinismus

Entmündigung

Diktatur

- 광고 문체:

Sie wählen SED, wir drucken Ihnen Ihre Lebensmittelkarten.

An meiner Haut lasse ich nur Wasser und Gysi!

- 시:

Sollen die Menschen im Lande bleiben,

so muss man Kampfgruppen und Stasi vertreiben!

Für eine Zukunft in Freiheit versperren sie die Sicht,

40) "Schwarzer Kanal"은 서독의 대중매체를 이념적으로 비판하던 TV 방송 프로그램.

und das Brot, das sie essen, verdienen sie nicht.

- 편지:

Herr Krenz! Jeder Arbeiter wird für gute Arbeit belohnt, für eine schlechte zur Rechenschaft gezogen. Wir fordern eine unabhängig arbeitende Volkskontrollkommission, damit die Arbeit von Herrn Honecker bis runter in die kleinste Funktionärsbene überprüft und analysiert wird! Ebenso fordern wir eine offene Devisenabrechnung der letzten Jahre. Danke!

그밖에 덧붙이자면, 위에서 패러디의 예를 보았지만, 넌지시 비꼬는 구호를 옹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동독의 현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

Egon, wir haben einen Plan.

Suche für Kurt Hager

Lehrstelle als TAPEZIERER.

위에 인용한 처음의 구호는 수십 년 동안 동독에서 방영된 덴마크의 텔레비전 탐정극 시리즈의 주인공 올센 Egon Olsen을 당시 정부의 최고 실권자였던 에곤 크렌즈 Egon Krenz에 빗대어 놀리는 표현으로서 극에서 에곤이 모의 하는 일들이 번번이 실패하자 에곤 올센을 따르는 패들이 하는 말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Plan”은 경제 계획을 말하지 않는다.

그 아래의 구호는 동독 정치국의 이데올로기의 좌장 격이었던 쿠르트 하거 교수가 1988년 모스크바로부터 돌아온 뒤에 ZDF의 어느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동독에서도 소련에서와 같은 개혁이 보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신의 이웃이 집을 수리한다면, 당신도 방을 도배하려고 합니까?”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서 동독의 주민들은 개혁이니 하는 것이 한낱 퇴락한 집에 도배를 새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Hellmann 1997: 60 참조).

통틀어 말하자면, 언어상으로 보아 옛 구호는 상징적인 어휘의 나열이라면, 시위 구호는 독창성과 유머로 두드러져 있으며, 구체적인 현실의 단면을 나타

내 보여 주고 있다. 표준어만이 아니라, 일상어와 속어도 사용하고 있다. 구문상의 특징으로 생략문이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구호의 본질적인(텍스트 내재적인) 기준이 짧다는 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운이나 리듬이 들어 있는 구호도 많아 아마도 구호를 합창으로 부르기가 쉬웠을 것 같다. 언어유희적인, 반어법적인, 경구적인 표현이 많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10, 11월의 베를린에서나 라이프치히의 시위에 지식인들이 능동적으로 대거 참여했던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분명히 근대 문학의 언어비판적인 전통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Polenz 1993: 135).

옛날의 의식적儀式的인 “통치의 화법”과 언어상으로 대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문체의 형식을 확보한 데 있다. 옛날의 본보기를 창조적으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새로운 모본을 개발한 데 있다(Fix 1990: 332ff.; Polenz 1993: 134f.). 가장 많이 이용한 수단은 텍스트 모본의 혼합이다(Fix 1994: 138). 말하자면, 새로운 화법의 본질적인 특징은 다른 텍스트로부터의 많은 인용과 새로운 표현이 들어있다는 점이다.⁴¹⁾

동독 사람들은 수십 년간 강요된 “언어에 있어서의 미성년 상태”와 언어의 상실을 겪고 나서 언어활동에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며, 숨 가쁘리만큼 빠른 기간 안에 자기네들의 언어를 다시 찾았다.⁴²⁾ 새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였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동독 특유의 언어였다.

군중시위 구호의 텍스트 종류는 1989년 연말에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며⁴³⁾ 늦게는 '90년까지 모습을 보였다.⁴⁴⁾ 전환기 이후의 구호⁴⁵⁾는 의사소통 행위

41) 이것을 텍스트언어학에서 ‘텍스트의 상호연관성’ Intertextualität이라고 부르고 있다.

42) Vgl. „Das Volk hat seine Sprache wiedergefunden“ zit. nach Stötzel 1991: 11, Rheinische Post 6.11.'89, S. 1.

43) 그 대신에 정치적인 내용의 구호를 담장에다 페인트를 뿌려서 쓰거나 새긴 이른바 ‘그라피티’ Graffiti(Graffito의 복수형)라고 불리는 낙서 형태로 나타났다. '89년 시위 구호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그라피티의 경우에는 작성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44) 옛날의 여러 텍스트 종류는 사라지거나 바뀌고, 새로운 텍스트 종류가 나타난다. 빠른 “적응 과정”(Fix 19994: 133) 속에서 동독에 전형적이었던 텍스트는 사라졌다: 환영인사, 투쟁 프로그램, 경쟁 프로그램, 작업계획, 보고, 평가 등.

45) 1990년 11월 4일에도 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 독일에서 똑같은 사회적인 권리를 위하여”(Gleichheit für alle?! Für gleiche soziale

의 자유를 누리게 된 개인과 집단의 발언으로서 독일 통일 이후의 변혁과정의 결과에 점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원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토로하고 있다:

*4. November und wieder nicht frei - Jetzt Knechte des Kapitals
Freiheit ist nur im Reich der Träume
Kohlsuppe schmeckt bitter / Gegen KOHLonie DDR.
Wir lassen uns weder beKRENZen noch verKOHLen.
Wir wollen keine KOHLonie werden! / Wir lassen uns nicht BRDigen.
Wir sitzen alle im selben Kot. / Wir waren Volk!
Wir sind vielleicht ein Volk / Wir sind ein blödes Volk! (Reiher 1992)*

위에 인용한 아래 부분의 구호 가운데 ‘국민’이라는 낱말의 정치 사회적인 의미는 인종적인 민족의 개념으로 대체되어 있다. 동독 정치의 테두리를 벗어나 독일 전체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있다.

구호에 집약된 '89년 가을의 그 사회의 암울했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의 강한 요구는 구호를 만든 시민들의 새로운 의식의 발로였다. 시민들은 공적인 담론의 잠재적인 상대로부터 독자적이며 의식적인 주체로 떠올랐다. 언어는 이제 창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리하여 당시의 구호 언어는 공적인 의사소통의 화법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4. 맺는말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혁의 과정은 언어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언어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언어자료로서의 어휘와 가려 뽑은 구호의 분석적인 예시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우리는 전환기의 핵심적인 낱말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社會相의 변화에 따른 신조어의 양상과 명칭의 변화, 의미변화의 경향 및 신조어의 소멸에 대

Rechte in Deutschland)라는 주제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소규모의 시위가 있었다.

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록 시위 구호라는 한정된 텍스트 종류를 다루었지만, 이를 통하여 이전의 동독 사회의 공식적인 언어의 화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언어문화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언어공동체와 의사소통공동체의 언어의식의 발전사”로 볼 수 있으며(Fix 1990: 332), “언어변화는 사람의 행동의 변화”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면(Polenz 1980: 37), 언어변화와 의사소통 문화의 질적인 향상은 얼마만큼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행동의 자유가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의 문화에 대한 통념으로는 의사소통의 태도에는 규범을 따르는 것 이외에 어떤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는 개인의 창조적이며 자유로운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부 독일인들은 통일이 된 이후에 언어활동과 의사소통의 태도에 있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⁴⁶⁾

동독이라는 언어공동체의 언어 사용과 의사소통상의 태도에 있어서 전환기와 더불어 일어난 변화는 아주 뚜렷하다. 이전의 동독의 정치인들의 공식적인 화법은 공적인 장소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며, '89년 10월 이후 그때까지 공식적인 의사소통에서 거론되지 않던 주제와 개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민주화 과정에 대한 가치평가를 달리 하면서 동독의 대중매체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동독의 공식적인 화법은 상대적으로 빨리 이전의 서독의 공식적인 언어 사용의 본보기에 접근하고 적응하였으며, 중간 층위의 공식적인 언어에 준하는 화법은 확대되었다. 말하자면, 군중시위라는 집단적인 행동방식을 통하여 이전의 공식적인 언어에 준하는 화법과 사적인 화법의 언어 수단을 새로운 공식적인 화법으로 끌어들이려는 대담한 시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46) 동독 주민의 언어생활에 있어서의 부자유에 대한 것은 아래의 증언을 참조할 것.
 “So war es für uns Germanisten aus der DDR, die wir nach der Wende zum ersten Mal an Fachtagungen in der Bundesrepublik teilnehmen konnten, eine ganz erstaunliche Erfahrung, mit welcher Eloquenz unsere westlichen Kollegen dort in freier Rede ihre eigene Meinung öffentlich vertraten und selbstbewußt verteidigten. [...] In der DDR hatte man nicht gelernt, die eigene Meinung zu sagen. Bewußt individuell geprägtes Sprechen wurde im Muttersprachunterricht nicht gefördert.”
 Baudusch 1995: 309.

동·서독 사이의 언어의 차이는 주로 어휘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동부 독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서부 독일 주민들의 언어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견해가 오랜 동안 지배하였다. 그러므로 동부 독일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사적인 일상어를 이전의 서부 독일의 언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견해에 우리는 동의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독일어의 역사는 이질화와 접근의 과정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989/90년의 전환기와 통일 이후 동독의 민주화의 상황 아래에서 언어상의 표현에 있어서 조정과 접근의 과정으로서 동부 독일인들이 서부 독일인들의 본을 따르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전환기 이전의 시기에도 언어의 이질화의 경향이 있었는가 하면 언제나 조정과 접근의 경향도 있었다.⁴⁷⁾

그러나 독일이 통일된 지 15년이 지난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도 한 국가 안에 두 사회가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킬 수 없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관점은 전환기와 통일의 결과로 상이한 일상이 맞부딪치게 됨으로써 비로소 국민들이 의식하게 되었다. 동·서부 독일인의 의사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확실히 어휘와 어법의 차이가 아니며,⁴⁸⁾ 동·서부의 독일인들이 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는 오히려 의사소통의 방식 내지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Hellmann 1997: 82). 동·서부 독일인 사이의 의사소통 행위상의 문제는 언어학적인 방법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차원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으로 학제간의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전환기 이후에 동부의 독일인들은 서독의 사회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언어생활의 영역에서도 서부 독일인의 언어 관습(특히 법률 개념, 시장경제에 관련

47) 언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가능하게 한 수단으로서는 동독에서 시청이 가능했던 서독의 TV방송과 서독의 대중매체의 동독에 대한 자세한 보도와 특히 70년대 이후 늘어난 인적인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48) 국가적인 변이형의 개념은 서로 다른 어휘의 수적인 차이만을 가지고 끌어낼 것이 아니다. 동·서독에서의 독일어의 두 변이형에 대한 개념을 많은 동독의 학자들은 거부하였다(예: 하르통 W. Hartung, 플라이셔 W. Fleischer).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언어학자 클라인 M. Clyne에 기대어 폴렌즈 P. von Polenz는 독일어의 언어공동체와 표준어의 “다중심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했다.

된 어휘)에 적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언어습관이란 짧은 기간 안에 바뀔 수 없으므로, 일부 동독 특유의 낱말과 표현⁴⁹⁾이 전환기 이후에도 사용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서부 독일인들의 너그러운 태도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러한 낱말들은 앞으로도 지방말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udusch, Renate (1995): Fremdheit und Vertrautheit. In: *Muttersprache* 105, H. 4, S. 302-314.
- Bauer, Dirk(1993): *Das sprachliche Ost-West-Problem*. Frankfurt/M. u. a.
- Burkhardt, Armin/Klaus Peter Fritzsche (Hg.) (1992): *Sprache im Umbruch. Politischer Sprachwandel im Zeichen von "Wende" und "Vereinigung"*. Berlin/New York.
- Clyne, Michael (1995): *The German language in a changing Europe*. Cambridge.
- Fix, Ulla (1990): Der Wandel der Muster - Der Wandel im Umgang mit den Mustern. Kommunikationskultur im institutionellen Sprachgebrauch der DDR am Beispiel von Losungen. In: *Deutsche Sprache* 18, S. 332-347.
- Fix, Ulla (1994): Sprache vor und nach der „Wende“: „Gewendete“ Texte - „gewendete“ Textsorten. In: Heringer, Hans Jürgen/Samson, Gunhild/Kauffmann, Michel/Bader, Wolfgang (Hg.) (1994): *Tendenze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S. 131-144.
- Fleischer, Wolfgang (1983): Die deutsche Sprache in der DDR. Grundsätzliche Überlegungen zur Sprachsituation. In.: *Linguistische Studien*. Reihe A. Bd. 111, S. 258-275.
- Fleischer, Wolfgang (1992): DDR-typische Benennungen und ihre Perspektive. In: Welke, Klaus/Sauer, Wolfgang W./Glück, Helmut (Hg.)(1992): *Die deutsche Sprache nach der Wende*. (=Germanistische Linguistik 110-111). Hildesheim · Zürich · New York. S. 15-34.

49) 예: *Kollektiv(Team/Arbeitsgruppe)*, *Zielstellung(Zielsetzung)*, *Raum(Zimmer)*, *Broiler (Brathähnchen)*, *Lehrling(Auszubildender)*, *Datsche(Wochenendhäuschen)*, *rekonstruieren (modernisieren/sanieren)* 등. vgl. Hellmann 1997: 76f.

- Förster, Uwe(1991): Deutsch 1990. In: *Der Sprachdienst* 35. S. 33-48.
- Fraas, Claudia (1990): Beobachtungen zur deutschen Lexik vor und nach der „Wende“. In: *Deutschunterricht* 43, H. 12, S. 594-598.
- Fraas, Claudia/Steyer, Kathrin (1992): Sprache der Wende - Wende der Sprache? Beharrungsvermögen und Dynamik von Strukturen im öffentlichen Sprachgebrauch. In: *Deutsche Sprache* 20, S. 172-184.
- Glück, Helmut (1995): Westdeutsch + Ostdeutsch = Gesamtdeutsch? Die deutsche Sprache fünf Jahre nach der ‘Wende’. In: *Sprachwissenschaft* 20. S. 187-206.
- Hellmann, Manfred M. (1989): Die doppelte Wende. Zur Verbindung von Sprache, Sprachwissenschaft und zeitgebundener politischer Bewertung am Beispiel deutsch-deutscher Sprachdifferenzierung. In: Josef Klein (Hg.): *Politische Semantik. Beiträge zur politischen Sprachverwendung*. Opladen, S. 297-326.
- Hellmann, Manfred M. (1990): DDR-Sprachgebrauch nach der Wende - eine erste Bestandsaufnahme. In: *Muttersprache* 100, S. 266-286.
- Hellmann, Manfred M. (1997): Sprach- und Kommunikationsprobleme in Deutschland Ost und West. In: Gisela Schmirber(Hg.): *Sprache im Gespräch - Zu Normen, Gebrauch und Wandel der deutschen Sprache*. München. S. 53-87.
- Hellmann, Manfred M. (1998): „Durch die gemeinsame Sprache getrennt“ - Zu Sprache und Kommunikation in Deutschland seit der Wende 1989/90. In: *Das Wort* (= Germanistisches Jahrbuch ‘98 GUS), S. 51-70.
- Hellmann, Manfred M. (2000): Divergenz und Konvergenz: Sprachlich-kommunikative Folgen der staatlichen Trennung und Vereinigung Deutschlands. In: *Die deutsche Sprache zur Jahrhundertwende*. Hrsg. von Karin M. Eichhoff-Cyrus u. Rudolf Hoberg. Mannheim. S. 247-275.
- Herberg, Dieter/Steffens, Doris/Tellenbach, Elke (1997): *Schlüsselwörter der Wendezeit. Wörter-Buch zum öffentlichen Sprachgebrauch 1989/1990*, Berlin/New York.
- Hopfer, Reinhard (1992): Christa Wolfs Streit mit dem „großen Bruder“. Politische Diskurse der DDR im Herbst 1989. In: Burkhardt, Armin/Fritzsche, Klaus Peter (Hg.): *Sprache im Umbruch. Politischer Sprachwandel im Zeichen von „Wende“ und „Vereinigung“*. Berlin/New York. S. 111-134.
- Kaufmann, Michael (1994): *Wende und Wiedervereinigung: Zwei Wörter machen*

- Geschichte. In: Heringer, Hans Jürgen/Samson, Gunhild/Kauffmann, Michel/Bader, Wolfgang (Hg.) (1994): *Tendenze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S. 177-190.
- Kinne, Michael (1990): Deutsch 1989 und in den Farben der DDR. Sprachlich Markantes aus der vor und nach der Wende. In: *Der Sprachdienst* 34, S. 13-18.
- Kinne, Michael (1991): DDR-Deutsch und Wendesprache. In: *Der Sprachdienst* 35, S. 49-54.
- Ludwig, Karl-Dieter (1977): Neue Benennungen und Wörtrbuch am Beispiel wende-typischer Lexik. In: Barz, Irmhild/Schröder, Marianne (Hg.): *Nominationsforschung im Deutschen*. Festschrift für W. Fleischer zum 75. Geburtstag, S. 133-144.
- Ludwig, Karl-Dieter (2001): Markierungen DDR-spezifischen Wortschatzes im Wandel. In: Schierholz, Stefan J.(Hg.): *Die deutsche Sprache in der Gegenwart*. Festschrift für Dieter Cherubim zum 60. Geburtstag. Frankfurt/M. u. a.
- Moser, Hugo (1964): Vorwort. In: Das Aueler Protokoll. Deutsche Sprache im Spannungsfeld zwischen West und Ost (= Die Sprache im geteilten Deutschland, 1). Düsseldorf.
- Oschlies, Wolf (1989): *Würgende und wirkende Wörter - Deutschsprechen in der DDR*. Berlin.
- Polenz, Peter (1993): Die Sprachrevolte in der DDR im Herbst 1989.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21, S. 127-149.
- Reiher, Ruth (1997): Dreiraum- versus Dreizimmerwohnung. In: *Der Deutschunterricht* 49, H. 1, S. 42-49.
- Reiher, Ruth (1992): „Wir sind das Volk“. Sprach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 den Losungen des Herbstes 1989. In: Burkhardt, Armin/Klaus Peter Fritzsche (Hg.) (1992): *Sprache im Umbruch. Politischer Sprachwandel im Zeichen von „Wende“ und „Vereinigung“*. Berlin/New York. S. 43-58.
- Reiher, Ruth/Baumann, Antje (Hg.) (2000): *Mit gepaltener Zunge? Die deutsche Sprache nach dem Fall der Mauer*. Berlin.
- Samel, Ingrid/Walther, Helmut(1990): Deutsch 1989. In: *Der Sprachdienst* 34, S. 1-13.
- Schlosser, Horst Dieter (1991): *Kommunikationsbedingungen und Alltagssprache in der ehemaligen DDR. Ergebnisse einer interdisziplinären Tagung Frankfurt/Main, 30.9-1.10.1988*. Hamburg.

- Samson, Gunhild (1994): Schlüsselwörter der Wende. In: Heringer, Hans Jürgen/Samson, Gunhild/Kauffmann, Michel/Bader, Wolfgang (Hg.) (1994): *Tendenze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S. 191-212.
- Schlosser, Horst Dieter (1999): *Die deutsche Sprache in der DDR zwischen Stalinismus und Demokratie*. 2. Aufl. Köln.
- Schröder, Jochen (1991): Gesellschaftlicher Wandel und sprachliche Reaktionen. In: *Deutsch als Fremdsprache* 28, S. 51-54.
- Stötzl, Georg(1991): Die deutsche Frage. Sprachwissenschaftliche Skizzen. In: *Sprache und Literatur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22, S. 2-20.
- Teichmann, Christine (1991): Von der „langue de bois“ zur „Sprache der Wende“. In: *Muttersprache* 101, S. 252-265.
- Thierse, Wolfgang: „Sprich, damit ich dich sehe“. Beobachtungen zum Verhältnis von Sprache und Politik in der DDR-Vergangenheit. In: Born, Joachim/Stickel, Gerhard (Hg.): *Deutsch als Verkehrssprache in Europa* (Jahrbuch IdS). Berlin/New York. S. 114-126.
- Volmert, Johannes (1992): Auf der Suche nach der neuen Rhetorik. Ansprachen auf den Massendemonstrationen Anfang November '89. In: Burkhardt/Frings (Hg.): S. 59-110.
- Welke, Klaus/Sauer, Wolfgang W./Glück, Helmut (Hg.)(1992): *Die deutsche Sprache nach der Wende*. Hildesheim·Zürich·New York. (=Germanistische Linguistik 110-111).
- Wolf, Birgit (2000): *Sprache in der DDR. Ein Wörterbuch*. Berlin/New York.

Zusammenfassung

Die deutsche Sprache der „Wende“

Kim, Tae-Seong(Pusan National Univ.)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Sprache in gesellschaftlichen Umbruchssituationen aus der Perspektive einer spezifisch linguistischen Fragestellung. Im Zentrum der Untersuchung steht der Wandel der Sprachverwendung unter den Bedingungen der Demokratisierung der DDR und der Vereinigung mit der BRD seit der Wende 1989/90. Dieser Wandel wird am Beispiel der Lexik, und anhand von Lösungen bzw.

Demo-Sprüchen konkretisiert.

Im Zuge der „Wende“ sind für beide Kommunikationsgemeinschaften - überwiegend aber für die der neuen Bundesländer - Neologismen in Gebrauch gekommen. Am bekanntesten sind: „*Mauerspecht*“, „*Wendehals*“, „*Montagsdemo*“ und „*Stasi-Akte*“ usw. Andererseits wurden im Verlauf der Wende zahlreiche Bezeichnungen, insbesondere für aufgelöste Institutionen der DDR sowie viele verwaltungsspezifische Wörter, historisiert.

An Textbeispielen der Losungen des Herbstes 1989 werden uns die Dynamik sprachlicher Strukturen auf der einen Seite und die sich verändernden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in der öffentlichen Kommunikation der ehemaligen DDR auf der anderen Seite vor Augen geführt. Verglichen mit den zum 1. Mai bekannt gegebenen offiziellen SED-Losungen, sind die Aktanten der Demo-Sprüche das Volk, teils als Individuen und teils als spontan gebildete Gruppen. Im Unterschied zu den „alten“ offiziellen Losungen repräsentieren die Demo-Sprüche verschiedenartige Sprechhandlungstypen: Nicht nur AUFFORDERN, APPELLIEREN, BEHAUPTEN, sondern auch FRAGEN, BESCHIMPFFEN, DROHEN, GRÜßEN usw. Gleichzeitig übernehmen sie viele Textmuster als sprachliche Stilmittel aus dem Bereich anderer Spruch- und Kurztextgattungen, wie zum Beispiel Sprichwort, Kinderreim, Aphorismus, Anspielung und verwenden auch Zitate. Auf diese Weise finden sich in den Wende-Losungen zahlreiche Belege für intertextuelle Bezüge. So schaffen diese Losungen schließlich eine neue Qualität des öffentlich-politischen Diskurses in der Gesellschaft.

Am Rande der Untersuchungen haben wir für das Deutsch in Ost und West festgestellt: Bemühungen der Annäherung und des sprachlich-kommunikativen Ausgleichs findet man seit der Wende 1989/90 eher auf der Seite der Ostdeutschen. Die sprachlichen Differenzierungen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waren vornehmlich lexikalischer Art. Es ist aber anzunehmen, dass es heute weniger die Sprache selbst ist als vielmehr das unterschiedliche Kommunikationsverhalten zwischen Ost- und Westdeutschen, das die Verständigung zwischen Ost- und Westdeutschen schwierig zu machen scheint.

[검색어] 구호, 전환기, 동독의 독일어
Losungen, Wende, Die deutsche Sprache in der DDR.

김태성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taeskim@pusan.ac.kr

논문 접수일: 2004. 10. 25

논문 심사일: 2004. 11. 23